

第91回 産業財産權 研修講座 개최

本會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명장려관 연구실에서 産業財産權 研修講座를 개최했다.

3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研修講座에서는 基礎人間課程으로, 特許·實用新案制度 解説(李瑑雨: 특허청 심판관), 意匠制度 解説(李昭南: 특허청 의장심사관), 商標制度 解説(俞東浩: 심사1국 행정사무관), 特許情報의 活用(盧完九: 辨理士), 國內外 特許紛爭 事例(高金

永: 특허정보 통신심사과장), 職務發明과 特許管理(金寬衡: 本會 調査資料部長), 開發段階에 있어서의 特許戰略(姜聲龍: 株式會社 金星社 特許部長)의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研修의 주제 중에서 특허정보 통신심사과 高金永 과장의 國內外 特許紛爭 事例의 全文을 소개한다.

〈柳泰洙 記〉

1. 國內 PC 業界 對 IBM社

韓國 企業이 IBM社의 交換機種인 퍼스널 컴퓨터(PC)를 低價로 생산하여 IBM의 市場을 잠식하게 되자, IBM은 1988년 6월 韓國의 주요 8개 PC企業에 대하여 自社의 特許를 침해하였다고 주장.

협상 결과 87년 1월부터 89년 12월까지 3년간의 Royalty로 內需販賣額의 약1% 수준인 7백36만불을 지불기로 함.

90년 5월에는 89년 하반기에 韓國에서 등록 받은 3件的 特許를 침해하였다 하여 內需販賣額의 Royalty를 1%에서 2%(70억원)로 추가 인상 요구 등 分爭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2. 東亞製藥 對 Bristol Myers

東亞는 82년 6월 항생제인 Amikacin을 개발하여 製品化 진행중 Bristol Myers(BM)로부터 同 製品에 대한 사업 포기를 요구하는 경 고장을 받음.

東亞가 自社特許 제조방법으로 Amikacin을

생산기로 결정함에 따라 85년 12월 BM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訴訟을 제기.

BM은 지방법원에서 訴訟 請求를 기각 당하자 高等법원에 抗訴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美 通商法 301조에 의하여 USTR(미통상대표부)에 청원함.

高等법원의 항소와 USTR의 청원이 기각됨에 따라 BM은 동아제약 보유의 特許와 Cross-Licence하여 Royalty 지불없이 협상을 종결.

3. TI 對 三星電子

韓國 企業이 84년부터 DRAM 등 반도체 제품을 미국 시장에 수출하여 오자 86년 TI社는 自社 所有의 半導體 特許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三星電子 등 세계 19개 회사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과 ITC에 訴訟을 제기.

日本의 7개 회사는 TI社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自社의 特許로 逆提訴를 하고 Cross-Licence의 체결로 和解(日本의 Royalty 지불액은 6개 회사 모두 합쳐서 1억3천만불

인 것으로 알려짐).

삼성전자는 訴訟에 휘말려 CAFC의 抗訴까지 가게 되어 8천5백만불의 Royalty를 지불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4. Virsonic 對 GPC (金星情報通信의 미국내 子會社)

GPC(Gold Star Product Company)는 자동전화 응답기를 미국내에서 판매하던 중 Virsonic社로부터 自社의 特許權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아리조나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를 당함.

GPC의 母會社인 금성정보통신은 2차에 걸쳐 답변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냄.

그 기간중 침해특허에 대한 回避設計를 마침으로서 유리한 和解가 되어 원고측으로부터 訴訟取下를 받아냄.

유능한 代理人 선정으로 최초 요구액인 50만불의 10분의 1 가격인 5만불로 Licence를 체결.

5. Intel 對 現代電子

미국의 Intel社는 GI(General Instrument)社의 OEM 방식에 의해 EPROM을 생산한 現代電子를 포함한 7개 회사를 特許權 侵害 이유로 87년 8월 미국의 ITC 및 California 북부연방지방법원에 提訴함.

ITC는 256K / 512K EPROM 및 관련제품의 美國內 輸入 및 販賣禁止 命令을 내림.

California 북부연방지방법원은 現代와 Intel社 간에 DRAM / SRAM에 관하여 Cross-Licence로 和解 契約을 함에 따라 ITC의 결정을 効力喪失케 함.

6. CAC 對 유창企業

미국의 CAC(Continental American Corporation)社는 金屬製 風船에 관한 特許權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87년 6월 한국의 유창企業을 포함하여 3개 회사를 상대로 ITC에 輸入排除 命令을 요구하는 提訴狀을 提出.

그후 提訴者의 사정 변경에 따라 ITC 제소는 取下하게 됨.

ITC 提訴中 대응을 하지 않고 있던 유창企業은 손해없이 訴訟을 종결.

7. 도시바 對 Zenith

日本 도시바(東芝)는 미국의 Zenith社에 브라운관 Licence 교섭을 했으나 不應하므로 교섭에 실패.

도시바는 Zenith 特許의 回避設計를 완성하여 미국시장의 진출을 再試圖.

Zenith社가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防害하므로 도시바는 Zenith를 상대로 Delaware 연방지방법원에 提訴함.

그 결과 Zenith 特許의 無効判決로 도시바가 敗訴.

KIPA通信 發刊案内	海外 特許情報 發刊案内
<p>本會는 매일 10일 特許界 뉴스지 KIPA 通信을 發刊하고 있습니다.</p> <p>國內外 特許界 뉴스를 보다 신속하게 알려 드리기 위해 發刊하는 KIPA 通信의 많은 애독을 바랍니다. 會員社에는 무료 提供되고 있습니다.</p>	<p>本會는 年 4回 季刊으로 海外 特許情報를 發刊하고 있습니다.</p> <p>4·6倍版 200面 내외로 發刊되는 이 刊行物에는 海外 特許制度를 비롯하여 각종 特許情報가 실려있습니다.</p> <p>會員社는 無料配布되고 있습니다.</p>